

테러리스트 급진화에 대한 조직행동론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 : Tuckman의 집단발달 이론의 적용

이동혁**, 정지수***

국 | 문 | 요 | 약

테러단체들의 선동에 현혹되거나 이를 추종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테러리스트 개개인의 반사회적 태도와 신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들의 극단적 신념 형성의 과정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온 테러리스트 급진화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Tuckman의 집단 발달 모형을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 개인의 급진화 과정 분석의 이론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조직행동론은 테러조직을 지향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해 가는 개인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 과정 즉, 급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와 급진화 양상의 상당 부분에서 Tuckman이 설명한 집단발달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직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저해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특성을 테러단체의 형성 또는 테러리스트 급진화 과정 저지에 활용할 경우,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 급진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테러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0.09.30.3.167>

❖ 주제어 : 테러, 급진화, 집단발달이론, 차단전략, 테러예방정책, 치안경쟁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8640, NRF-2017S1A3A2065838), 2020년 8월 서울행정학회 하계 특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경위(leevent@hanmail.net)

*** 교신저자. 경찰대 행정학과,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조교수(jisu@police.ac.kr)

I. 서론

우리는 IS라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조장하는 테러의 공포를 목격해왔고, 그 결과 테러는 특정지역, 국가에만 한정된 사건이 아닌 전 세계적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을 점령하던 IS가 연합국의 오랜 공습, 지도자의 사망으로 그 세력이 쇠퇴한 듯 보이지만,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뒤에도 그랬듯이 극단주의 점조직들이 모여 조직을 재규합하거나, 또 다른 후계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동 동력이 구축된다면 그와 비슷한 테러조직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

조직(Organization)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집합체(social entity)로 정의할 수 있으며(Daft, 2015), 테러조직 역시 테러라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복수의 개인이 모인 연합체라는 점에서 조직의 개념에 포함된다. 특히, 테러조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급진화’라는 의식의 전환 과정을 거쳐 극단주의라는 반사회적 신념을 축적한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테러단체를 조직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구 이외에도 테러를 직접 실행하는 개인들의 태도 변화 양상과 급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특성(Wiktorowicz, 2005; Precht, 2007; Silber & Bhatt, 2007; Marc, 2008; 박철현, 2010; OSCE, 2014; 최성진, 2015; 서정민, 2016; 김은영, 2018)을 가지고 있다. 급진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별로 처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수가 어떻게 테러라는 극단적 신념 표출로 이어지는가에 관해 주목해 왔다. 최근에는 주요국 안보기관 차원에서도 테러단체 가입, 극단주의 심취와 같이 개인별 의식의 전환을 통한 과격화 양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를 차단 및 억제할 수 있는 반급진화(de-radicalization) 방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뉴욕경찰은 과거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즘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급진화를 급진화 이전단계, 자기인식단계, 주입단계, 지하드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Silber & Bhatt, 2007). 덴마크 법무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급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급진화를 촉발하는 동기 요인들을 분류해 이를 체계화하였다(Precht, 2007).

아울러, 최근 반이민 극우테러 빈발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은 이슬람 극단주의

외에도 사회 구조,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포괄적 차원의 급진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소외에 따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 그리고 테러리즘 등 극단적 신념의 형성을 조장하는 환경과 네터티브의 노출 등이 개인의 급진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SCE, 2014).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15년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입국한 ‘김 군’과 같이 극단주의에 심취한 개인의 테러단체 동조나 가입 재발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이 같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개인의 급진화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진화(radicalization)를 단일 주제로 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급진화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의미 있는 선행연구들에서도 해외 사례나 테러리스트 급진화 이론 중 일부를 설명해주고 있다(박철현, 2010; 최성진, 2015; 서정민, 2016; 김은영, 2018).

테러단체들의 선전, 선동에 현혹 및 포섭되는 극단주의자, 또는 그에 편승해 나타나는 모방테러나 증오범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반사회적 신념이 어떠한 경로와 요인에 의해 형성 및 발전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형성과 유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직행동론(organization behavior)의 이론적 함의를 토대로 테러조직의 형성 과정과 테러리스트로 급진화되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테러조직의 형성과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조직행동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가입, 참여 동기, 조직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기여 과정 등 조직 내 인적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조직행동론의 이론적 함의 속에서 조직을 향한 개인의 신념과 행동의 변화 양상을 역(逆)으로 도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접근은 향후 테러조직의 형성과 발전은 물론 테러리스트 개개인의 급진화 과정 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직행동론적 고찰을 통해서 해외에 비해 테러리스트 급진화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테러리즘 분야에 이론적 차원의 분석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언제든 발생 가능한 개인, 소그룹 단위 자생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당국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및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연구의 접근방법과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테러리즘 분야 연구에 있어 활용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치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신뢰 및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테러리스트 급진화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선행연구 및 실무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둘째, 테러리스트 개인의 급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대안으로 조직행동 이론 가운데 Tuckman(1965) 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2015년 ‘김 군’의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할 것이다. 셋째, 국내의 개인 소그룹 단위 자생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당국이 고려해볼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그동안 테러리즘 원인 규명과 관련해 다양한 이론적 제안과 학문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테러리스트 개인의 급진화 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테러리즘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접근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김은영 외, 2018). 본 연구 역시 테러리스트 급진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므로 최근 테러 관련 연구 가운데 급진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개인이 실제 테러라는 반사회적 폭력성을 수용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 급진화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테러리즘과 관련해 급진화(radicalization)는 극단주의적 신념(beliefs)과 이데올로기(ideologies)를 발전(developing)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이라는 학문상 정의(Borum, 2012)도 존재하나,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유럽 국가 내 안보당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실무적 개념 규정과 더불어 테러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Schmid(2013)가 정리한 주요 국가들의 급진화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사회에 대한 특정 이데올로기로의 변화를 위해 폭력 및 비민주주의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1)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는 급진화를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 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급진화의 개념이 규정 주체별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테러와 폭력이라는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 가치를 수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급진화는 ‘테러를 야기하는 행위 주체 내심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태도의 단계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테러리스트 개인의 의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테러의 발생과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 논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테러 급진화 연구와 급진화 단계 모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Wiktorowicz(2005)는 유럽 사회로 이주한 무슬림들이 어떠한 동기와 경로를 통해 이슬람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 해산된 영국 내 이슬람 급진주의 조직 ‘알 무자히룬(Al-Mujahirioun)’ 회원들의 급진화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반복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일수록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 행동주의에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급진화 양상을 모색단계(cognitive opening: 무슬림의 신념과 가치를 스스로 평가), 종교적 지향단계(religious seeking: 사상과 공동체 지향), 사회화 단계(socialization; 구성원 공동의 목표화), 구축 및 강화단계(frame alignment: 반사회적 사고 체계 구축)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recht(2007)는 유럽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개개인의 급진화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를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급진화된 개인이 극단주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테러행위를 실행하기까지는 반사회적 성향의 개인 간 인적 상호작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으로 작용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Precht(2007)는 이를 급진화 이전단계(급진화의 배경 요인의 목적 가능), 친교 단계(친교의 강화와 삶의 돌파구 모색), 결속강화단계(무슬림 차별에 대한 결속 강화), 실제 행동단계(테러단체 가입과 실행)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Silber & Bhatt(2007) 역시 Precht(2007)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구사회 사람들의 급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9.11 테러를 비롯해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주요 국제테러 사건 공모, 가담자들의 급진화 과정을 분석했는데, 대

또는 조장하려는 극단적 신념체계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Schmid, 2013).

부분이 급진화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Precht(2007)의 연구에서처럼 일정한 단계 변화를 거쳐 테러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테러리스트로 발전하는 자들의 급진화 이전단계(pre-radicalization)의 모습은 대부분 처음에는 학생이나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지만, 이들은 다양한 개인적(가족, 친지의 사망), 사회적(차별, 소외, 인종차별), 경제적(실업 등), 정치적(이슬람과 관련된 국제 분쟁) 요인들에 의해 삶의 태도 변화를 추구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발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자기인식단계: self-identification).

또한, 이러한 태도는 비슷한 유형의 소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주입단계, indoctrination), 최종적으로는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테러를 결행하는 등 급진적 신념을 표출하는 실행단계로 발전하게 된다(테러실행 단계, Jihadization). 특히, 급진화 이전단계(pre-radicalization)에서 자기인식단계(self-identification)까지는 최장 7~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주입 단계(indoctrination)에서 실제 테러 실행에는 1~2개월 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Marc(2008)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테러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을 도덕적 분노 단계(무슬림 탄압의 목적과 감정형성), 이슬람 세계관의 형성단계(서양과 이슬람 간의 관계 이해), 좌절의 경험과 결합단계(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과 감정의 결합), 체계적 공유단계(정보의 공유와 네트워크화)로 구분하였다.

국내연구는 한국 내 자생 테러(home grown terror)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는 연구(서정민, 2016; 김은영, 2018)에서 테러리스트 급진화 과정을 논의한 해외 연구들의 이론적 개념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박철현(2010)과 최성진(2015)은 Precht(2007)의 급진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을 진단했다. 연구 당시 국내에서는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논의할 만한 실증적 사례 부족 등의 이유로 Precht(2007)가 제시했던 이론적 틀에 근거한 국내 자생테러 발생 요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로 평가된다.

이처럼 테러리즘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개개인의 급진화를 테러리즘 연구에 있어 독자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다양한 유형의 이론적 기틀 안에서 분석한 해외 연구들의 접근 시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각기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사람들이 어울

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 가능성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 불만 및 소외 계층들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의 급진화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테러리즘 관련 이론과 한계점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다만 본 연구가 테러라는 결과 발생 이전에 테러의 인과적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테러리스트 개인의 태도와 의사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 예방적 활동 수립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연구 목적과 취지의 부합성을 고려해 아래 세 가지의 관련 제이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테러리즘의 인과적 요인으로 급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 모자이크 이론, 블랙스완 현상이 있다. 첫째, Gurr(1970)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을 통해 사회 내 비합법적 폭력의 원인을 분석했다. 상대적 박탈감은 가치 기대(value expectations)와 가치 능력(value capabilities)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박탈감은 개인은 물론 집단 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사회적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할 경우 사회, 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는 결국 폭력적 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 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Gurr(1970)의 이론은 폭력으로 귀결되는 개인의 반사회적 의식의 형성 배경을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테러와 급진화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둘째, Gallandi(1983)는 독일에서 국가 안보와 질서를 저해하는 위협의 개념을 설명할 때 위협의 모자이크 이론(Mosaiktheorie der Gefahr)을 주로 인용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행위 그 자체만 보아서는 위협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위협이 많이 모이고 겹쳐지면 큰 위협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창윤, 2014).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급진화의 심각성 역시 위협의 모자이크 이론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속에 과격 성향 온라인 게시물이나 지하드 급진 이슬람주의 선동 강연가들의 영상물과 같은 외부자

극은 테러라는 사회적 위협으로 즉각 발현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절한 제어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테러와 같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데올로기라는 위협의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하나의 조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블랙스완 현상(Black swan event)이다. LaFree(2012)는 과거 9.11 테러가 가져온 사회적 후폭풍을 블랙스완 현상(Black swan event)의 현상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는 예측 불가했던 일들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변화와 파장의 심각성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테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안보 충격과 이를 통해 파생된 각종 사회, 경제적 파장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자와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론이다. ‘블랙스완’ 이론은 테러라는 사회적 위협 조장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오늘날 테러 발생 요인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배경적 함의와도 일맥상통한다.

테러를 바라보는 위와 같은 이론적 관점들은 대테러 활동 기관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사회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활동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들이 테러라는 사회적 무질서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이를 야기한 각종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선행요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역추론할 수 있는 토대는 될 수 있지만, 밀행성이 강한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 개개인의 형성과 진화과정 전체를 보다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들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테러와 같은 정치적 폭력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전략이론(strategic theory)이고, 둘째는 테러와 같은 폭력적 활동의 원인이 테러 집단 자체의 내부 역학에서 발견된다는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이며, 셋째는 테러리즘은 테러행위를 채택한 개개인의 심리학적 틀 안에서 설명된다는 심리학적 이론(psychological theory)이 있다. 그 중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행위 동기와 의사결정과정 관련 연구들은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한 것이 많았으나, 변화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McCormick, 2003; 정유선, 2012).

이처럼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들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어왔지만, 대

부분이 조직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테러리스트들의 급진화라는 개인의 의식변화 과정을 심리학적 이론 이외의 방법으로는 설명한 연구들은 부족하다는 연구상 한계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3. 조직행동론적 접근의 필요성

테러리즘에 관해 상술한 이론들은 테러를 개인의 반사회적 속성 또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균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테러의 원인과 배경을 개인적 수준의 영역에만 국한시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테러의 이면에는 이 같은 개인적, 환경적 배경 속성 외에도 테러조직이라는 집단적 의사결정 주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테러 연구를 위해서는 테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속성들은 물론 이러한 속성들의 조직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개인에 대한 영향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테러리스트 급진화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과 연구 논의가 보다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이론에 주로 의존해 온 그간의 경향을 탈피해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 이론과의 융합, 접목 시도가 필요하다.

조직행동론은 테러단체의 조직적 성격을 이해하고 조직과 내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조직행동론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행동과 소속 집단의 행동의 원인을 다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Daft, 2015; Rainey, 2009; Robbins & Judge, 2013). 또한, 조직원들과 관련하여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을 고려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역동적으로 밝히고 있다(Daft, 2015; Rainey, 2009; Simon & March, 2006; Simon, 2013). 즉,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직구성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조직을 향한 개인의 신념과 행태를 통해 조직의 행동 양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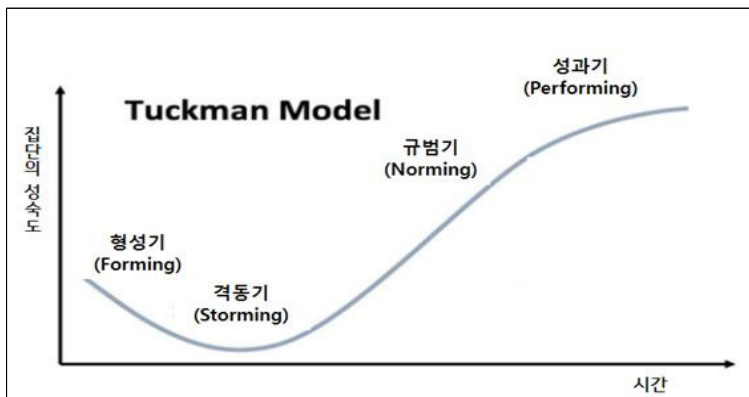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달성 등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들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이 테러조직 내에서 반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이데올로기를 수용해 가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 과정과 급진화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조직행동론은 테러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나타나는 내부 역학관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을 향한 테러리스트 개인의 의식과 태도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조직행동론의 이론적 함의는 테러조직과 직접적 연계는 없지만 테러조직의 이념과 노선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면서 독자적으로 테러를 계획, 실행하는 소위 외로운 늑대형 테러와 같이 개인 단위 테러리스트들의 급진화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존 급진화 단계 이론의 대안적 모델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행동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모델 가운데, Tuckman(1965)의 집단 발달 이론을 통해 테러조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테러라는 반사회적 신념과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개인들의 급진화 과정 분석의 틀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Tuckman(1965)의 이론은 비교적 소규모 그룹의 구축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며, 조직의 태동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특성과 요인을 단계화된 구조에 기반해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Ⅲ. 조직행동 이론의 적용

1. Tuckman의 집단발달 이론



[그림 1] Tuckman의 집단 발전모형

자료: <https://vagile.net/tuckman-edison-model/?amp=1>

Tuckman(1965)은 Team Development Model을 통해 집단은 형성기(forming), 격동기(storming), 규범기(norming), 성과기(performing)의 단계를 걸쳐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²⁾. 형성기(forming)는 조직이 불확실성 하에 있는 시기로 구성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에 대한 적응 및 의존성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격동기(storming)에 접어들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양극화, 그리고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고, 조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규범기(norming)에 들어서면 구성원 간에 친밀도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가능하고, 조직 활동의 기준과 목표가 명료해져 조직의 응집력이 높아진다. 성과기(performing)에 진입하면 구성원들의 활동의 유연성, 기능화로 목표달성에 집중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Tuckman, 1965).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성기(forming)와 격동기(storming)에 발생하는 조직 발전 저해 변수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형성기(forming)와 격동기(storming)에는 조직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형성기(forming)에는 집단의 목적, 구조, 리더십에 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구성원 간에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 형성의 배경과 활동 방향성을 명료화하고 구성원들의 소속감 형성을 고취할 수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형성기(forming)에 리더는 불확실성이 극복되어도 격동기(storming)에 접어들게 되면 구성원들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이 조직 활동 과정에 표출되면서 구성원 간에 의견 충돌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조직이 규범기(norming)와 성과기(performing)로 발전할 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Tuckman(1965)의 주장처럼 일정하고 순차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조직은 형성기(forming) 이후 격동기(stormin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규범기(norming)로 발전할 수 있고, 성과기(performing)에 진입한 조직도 예측치 못한 각종 내외부적 변수로 인해 언제든지 격동기(storming)로 쇠퇴할 수도 있다. 조직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그림 1]와 같은 선형적 형태의 우상향 발달 곡선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점은 Tuckman(1965) 이론의 현실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 Tuckman은 집단의 발전을 위와 같이 4단계로 나눴으나 1977년에 해체(Adjourning) 단계가 추가되면서 현재는 총 5단계 모델로 알려져 있음. 본 연구에서는 테러예방정책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므로 마지막 ‘해체(Adjourning)’를 제외한 4단계에 기반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2.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 과정과 비교 논의

집단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한 Tuckman(1965)의 모델이 ‘테러리스트의 조직화 과정’이라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비교 논의의 틀로 활용될 수 있는가?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 과정 역시 극단적 이념과 신념을 수용한 급진화된 개개인들이 결합해 이루어지는 집단의 목적 수행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조직행동 이론의 적용은 가능하다. 실제로 Tuckman(1965)의 이론을 기반으로 테러단체의 조직화 과정을 Roberts(2015)는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기로 구분하여 테러조직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의 표는 테러단체의 조직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표 1] Tuckman의 집단발전 모형과 테러단체 조직화 과정 비교

Tuckman(1965)	단계	Roberts(2015)
• 집단의 목적, 구조, 리더십에 관한 불확실성 최대 • 집단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 부족 •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가 미형성	형성기 (Forming)	• 리더십의 부재로 테러단체 결성 초기 95%가 수개월 이내 붕괴
↓		
• 집단의 의사결정이나 소통에 문제 • 집단 내 구성원 간 대립, 긴장 발생 • 구성원 간에 사회적 유대관계 긴밀하면 격동기의 갈등 가능성이 줄어듦	격동기 (Storming)	• 구성원 친인척 간 결혼을 유도해 격동기의 갈등 가능성을 극복(알 카에다)
↓		
• 조직의 목표와 신념을 공유 • 구성원간 상호 신뢰구축	규범기 (Norming)	• 조직원 간 활동 목표, 명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견, 이탈자 발생 • 이탈 후 경쟁 테러 세력 형성
↓		
• 구성원의 에너지가 조직 과업에 집중 • 실질적인 결과로 도출	성과기 (Performing)	• 테러자금 모금, 실제 공격행위 등 조직 목표에 부합한 활동의 결과물들이 도출

자료: Roberts(2015) 내용 중 Tuckman 이론 적용 부분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형성기(forming)에는 집단의 형태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구성원간 완벽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과거 테러단체들의 약 95%는 생성 초기 조직원

간 불신과 리더십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기에 붕괴되었다.

격동기(storming)에는 집단 내부에서 의사결정이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구성원간 대립과 긴장이 발생한다. 테러단체들은 이러한 격동기(storming)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유대 강화 수단을 모색한다. 알 카에다(Al-Qaeda)의 경우 구성원 가족 간 혼인을 통해 긴밀한 인적네트워크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격동기(storming)의 내부 갈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규범기(norming)에는 조직 구성원 간에 조직의 목표와 신념을 공유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규범기(norming)는 테러단체가 어느 정도의 조직력과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내부적으로 활동의 목표와 명분, 신념, 이데올로기를 둔 이견이 발생하거나 이탈 세력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리고 이탈한 세력이 발생하는 경우 원 조직의 경쟁세력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성과기(performing)는 조직 구성원의 에너지가 조직의 과업에 집중되며 실질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시기이다. 테러단체의 경우 테러자금 모금, 실제 공격행위 등 조직 목표에 부합한 구성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다(Robert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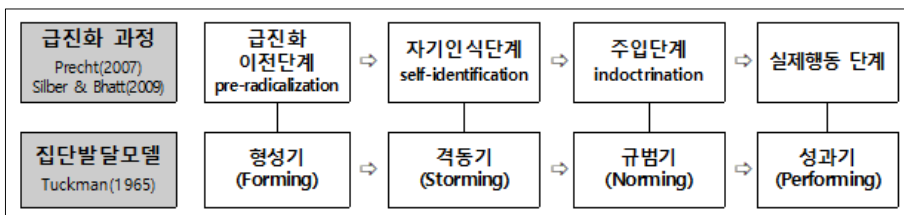
Roberts(2015)의 연구는 조직행동 이론이 테러조직 내부의 집단 심리와 구성원들의 행태 변화 양상을 논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테러조직 내부의 집단적 역동성에만 초점을 맞춰 테러의 본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는 테러 연구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테러 분야 연구에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테러단체가 지닌 조직적 차원의 행태 분석 외에도 테러단체를 지향하는 개개인의 동기, 신념과 행동의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Tuckman의 조직행동론적 관점을 극단적 신념체계를 수용해 나가는 개개인들의 사회, 심리적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로 재해석함으로써 테러단체 구성원들의 행태 변화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조직 내부적 역학 변화 양상만을 고찰한 Roberts(2015)의 연구적 논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3. 테러리스트들의 ‘급진화’ 과정 모델로의 재해석

조직행동이론은 조직 속에서 구성원 개인들이 겪는 변화와 집단의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구성원 개인의 가치, 지각, 태도, 동기부여와 같은 인간 행동에 관한 근원적 지식과 이해를 학문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Tuckman의 모델은 조직 발전을 위한 리더십,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외에도 조직설계와 조직문화 구축 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환경적 변수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행태 변화의 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듯 테러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테러리스트들의 급진화 진행 과정들과 Tuckman의 조직 발전 이론 사이에는 비슷한 형태의 전개적 맥락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Tuckman의 모델은 소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통제하는 구조화된 테러조직을 향한 개인의 급진화 과정은 물론 최근 들어 테러조직과의 유대나 상호작용 없이 각자 당면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폭력 유발 변수에 의해 급진화되는 자생테러범의 행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2] 주요 급진화 과정 모델과 Tuckman의 모델 비교

이와 함께 위 Tuckman 이론의 단계적 맥락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재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테러리스트의 급진적 사회화 과정과 테러 예방적 차원의 급진화 징후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급진화 형성기(forming)는 개인적, 사회적 불만이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급진적인 생각이나 극단주의 세력의 이데올로기로의 접

근 지향성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평소 호기심에서 비롯된 습관화된 인터넷상 극단주의 성향 콘텐츠 검색행위가 테러단체 관련 기사나 선전문로의 자발적 접근으로 일상화되기도 하고,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인물이나 단체 인사와의 자발적 접촉 시도 행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급진화 형성기(forming)는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과 대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내적 신뢰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외부적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의 생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여 여간 가족이나 동료들과 불화나 갈등을 겪기 쉽고, 주변인들에게 수시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학업의 중단, 퇴사, 재산처분 등)하려는 등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급진화 형성기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와 배치되는 특정 이념을 수용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징후와 다양한 유형의 행태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급진화의 격동기(storming)는 내적으로 새로운 신념에 대한 탐색과 수용의 합리적 선택 여부를 두고 사고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행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비판하는 가족, 동료 등 주변인들과의 충돌과 대립으로 갈등이 극대화 되는 시기이다. 특히, 급진화 격동기(storming)에 주변인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극복되지 못하고 심화될수록 그간에 내재되어 있던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적대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이 시기에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주변 조력자(카리스마적 정신적 조연자)나 특정 집단과의 사회적 유대 강화(사회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가치관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상 소통의 장 등)는 격동기(storming)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적 갈등을 해소한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급진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급진화 규범기(norming)는 앞서 격동기에 나타났던 주변 급진적 이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아무런 의문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믿고 결론 내리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는 테러라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또는 정당성을 찾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공유 중인 인물이나 집단과 관계가 구축되었다면, 그들과의 응집과 조화를 통해 한층 체계적인 행동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령, 이 시기에 나타나는 행태로는 극단주의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상 모임에 가입해 동질집단 내 구성원들과의 은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이가 주변인을 대상으로도 자신과 같은 행태의 급진화를 유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규범화된 양상을 보인다. 결국 급진화 규범기(norming)는 폭력과 테러와 같은 사회보편적 가치와 정면 배치되는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과의 상호작용 또는 이에 대한 자기 확신을 통해 테러자금 모금, 테러단체 가입, 테러공격 모의, 실행과 같이 급진화 성과기(performing)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Tuckman의 조직행동론적 관점에서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재해석하면 극단주의에 심취한 개인의 자생적 테러범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유용하다. 이는 2015년 1월경 터키 국경을 거쳐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건너가 IS 대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 군’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³⁾

당시 경찰의 조사결과 보도자료, 언론자료 등을 토대로 언론에 공개된 김 군의 과거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후유증으로 자퇴한 후 홈스쿨링으로 집안에서만 머물며 인터넷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족과도 메모지로 대화할 정도로 사회와의 소통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을 보였던 그에게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새로운 신념에 대한 호기심은 자신의 내면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 군의 급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형성기(forming)적 특성은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었던 그가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와의 접근과정에서 이루어진 유대감 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2013년 1월에 ‘수니 무자헤딘(Sunni mujahideen)’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면서 일찍이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새로운 신념체계로의 접근을 구체화했다.

급진화 과정에서 격동기(storming)는 새로운 신념 수용에 따른 내외부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3) 2015년 1월 터키를 여행하던 한국인 10대 김 군이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은 당시 주 터키 한국 대사관과 터키의 일간지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이후 국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군의 어머니는 김 군이 인터넷으로 만난 터키인 펜팔 친구 ‘핫산’을 만나기 위해 터키에 갔으며, 미성년자인 김 군을 홀로 보내기가 미덥지 않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을 동행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종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결과 김 군이 사용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가 최소 2년 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IS)’에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려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수사당국도 김 군이 시리아 밀입국을 위해 터키행을 택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015. 1. 17. “터키서 실종 한국인 10대, 현지인 펜팔 있었다”)

접근하는 과정에서 김 군도 자신이 내린 결정과 행동에 대해 내·외부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김 군의 가족조차 그의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정황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조력자와 유사 집단과의 친교는 김 군의 급진화 격동기(storming)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적 갈등을 해소한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부모에게도 터키에 있는 ‘핫산’이라는 인물을 만나러 간다고 다짐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의 급진화 과정에는 구체적인 소통 대상이자 조력 인물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김 군이 보여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지속된 접촉과 상호작용 행태⁴⁾는 동질 집단과의 조화와 응집이라는 규범기(norming) 특유의 행태로 발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리아행 감행이라는 성과기(performing)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논의(Tuckman, 1965)와 선행연구(Roberts, 2015; Precht, 2007; Silber & Bhatt, 2009), 김군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하여, 테러리스트 급진화 단계와 주요 징후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2〉 Tuckman 이론에 기반한 테러리스트 급진화 단계 및 주요 징후

단계	단계별 특징	주요 징후
급진화 형성기 (Forming)	• 개인적, 사회적 불만 해소 대안 탐색 • 주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자신의 세계를 구분지으려 함 •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접근 지향 • 대상 신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 강화 시도	• 성격과 기질의 급격한 변화(주변인 경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 은둔형 외톨이) • 사회적 관계 의도적 단절(학교, 직장 등) • 특정 이념에 대한 호기심 증가(극단주의 콘텐츠, 온라인상 선전물 탐색)
↓		
급진화 격동기 (Storming)	• 급진 신념 수용 선택 여부를 둔 사고의 양극화 • 주변인(가족, 지인)들과 대립 갈등 •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적 대로 발전	• 주변인들과의 논쟁, 의견충돌 심화, 적대적 행동 • 종교적, 이념적 대립성 강조(서방과 이슬람과의 충돌 등 종교적 정체성 수호와 관련된 극단적 발언 증가) • 테러단체 사이트 가입, 조력자와 비밀 접촉 시작
↓		
급진화 규범기	• 조력자, 동질집단 간 소통을 통해 테러 등 급진적 신념에 대한 내적 신뢰	• 감시와 통제를 의식(암호화 메신저 사용, 소셜미디어 활동 흔적 삭제, 조작, 온라인 인맥 비공개 등)

4) 김 군이 익명의 조언자와 온라인 교신이 활발하던 이 시기 그의 컴퓨터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65개의 즐겨찾기와 40여 장의 사진, 그리고 다수의 검색기록이 확인되었다(윤봉환 외, 2015).

(Norming)	와 당위성 형성 • 은밀한 소통을 지향, 주변 상대로 동조와 포섭을 유도하는 등 규범화	• 분쟁지역 이동 시도 • 테러조직 합류목적 이동을 위한 조력 요청 • 개인 자산, 소유물에 대한 비정상적 처분 • 주변인 상대 급진화 시도(설득, 포섭)
↓		
급진화 성과기 (Performing)	• 테러단체 자금 모금 및 지원, 테러단체 가입 • 실제 테러공격 모의, 실행	

IV.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본 연구가 조직행동론적 관점에서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테러예방 정책 수립에 있어 새로운 시각의 학문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발달을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한 Tuckman의 모델은 아래와 같이 테러조직의 이념을 지향하는 개인의 사회화를 차단하고, 우리 사회 내 테러단체와 같은 반사회적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저지할 수 있는 테러 예방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1. 테러리스트 급진화 차단전략(De-radicalization)

급진화되는 개인들은 형성기(forming)를 통해 반사회적 이념이나 테러단체의 이데올로기로의 접근을 고민한다. 형성기(forming)나 격동기(storming)에는 전에 없던 생각과 이념을 수용한다는데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결심을 굳힐지 아니면 멈출지를 두고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형성기(forming)나 격동기(storming)에 겪는 불확실성과 내적 갈등은 같은 생각을 가진 주변인을 탐색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적 박탈감, 정체성의 위기, 사회적 차별과 소외, 반사회적 신념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부재한 집단과의 교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유해 환경과의 접촉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급진화를 가속화 시키는

영향요인이 된다.

대테러 기관으로서는 형성기(forming)에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급진화의 길목에서 선택 여부를 고민하는 개인들에게 그러한 결심을 단념케 하거나,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형성하는 것 만으로도 테러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치안 당국은 홍보 및 예방활동을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출입국사무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대상(학생, 대학생, 현역, 예비역, 민방위, 외국인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형성기(forming)를 거쳐 격동기(storming)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있어 대테러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테러와 관련된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수 있는 취약 환경을 점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급진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급진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치안 당국의 사이버 담당 조직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 나타나는 테러와 같은 급진적 성격의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차단, 이에 대응하는 공익 콘텐츠를 역생산해 유포하는 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급진화 의지와 급진화된 개인을 상대로 조직원 포섭을 노리는 테러조직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규범기(norming)로 진입해 성과기(performing)에 이르게 되면 급진적 신념에 대한 확신과 테러 목표 추구 지향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위와 같은 순수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 활동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 대테러 당국으로서는 무엇보다 규범기(norming)로 진입해 성과기(performing)를 목전에 두고 있는 위험인물을 조기에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급진화를 조장하는 단체나 위험인물에 대한 행동 징후를 포착하고 이들의 실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 억제할 수 있는 대테러 기관 내부의 시스템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행동위협평가센터(Behavioral Threat Assessment Center, BTAC)라는 전문가 조직을 통해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을 진단해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⁵⁾ 이와 함

5) 미국 FBI 사이트 참조,

<https://www.fbi.gov/news/pressrel/press-releases/fbi-behavioral-threat-assessment-center-releases-one-offender-terrorism-report>

게,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의 행태를 분석해 대테러 당국과 지역사회 모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 역시 특이할 만하다⁶⁾.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보다 규범기(norming)와 성과기(performing)에도 유효한 대테러 활동의 전략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대테러 당국에서도 도입,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한다. 특히, 테러에 대한 현행 법규정 상 한계와 모호성은 개선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를 ‘국가,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시설물 폭파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⁷⁾. 이 같은 규정은 동법의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신 이상, 사적 원한 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테러 범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규범기(norming)에서 성과기(performing)로 진화하는 테러 위험인물들의 행동 양상과 각종 징후들에 대한 대테러 당국의 개입 범위를 제도적으로 축소 규정할 수 있으며, 당국의 예방적 테러 활동에 대한 유인과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테러리스트 반급진화 예방 전략의 핵심은 형성기(forming)에서 성과기(performing)까지 이르는 급진화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급진화 변수와 테러와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급진화 진행에 있어 대테러 당국의 개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법적, 제도적 한계와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 발생에 대한 부담과 위험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대테러 당국은 형성기(forming)와 격동기(storming)에 나타나는 급진화 징후 포착을 위한 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함과 더불어, 규범기(norming)와 성과기(performing)로의 발전을 저지할 수 테러예방적 차원의 반급진화 프로그램을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2019년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토안보부(DHS) 등과 합동으로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행동 위험 징후를 수준에 따라 단계별(3단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한 총 46개 항목의 극단주의자 식별 지표를 개발해 책자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NCTC, FBI, DHS, HVE. (2019). Homegrown Violent Extremist Mobilization Indicators, 2019 edition을 참고>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의 1항~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undefined>

2. 테러조직 발전 저지 전략과의 연계

대테러 기관에서는 조직의 단계별 발전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뒤, 이를 역(逆) 이용하는 전략을 통해 테러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적 반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일수록 활동의 밀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테러조직의 형성기(forming)를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성기(forming)에는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 시점에 그러한 단체의 활동 가능성을 감지한 대테러 기관으로서도 법집행 활동의 필요성과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는 비밀요원이나 협조자들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 의지와 조직 몰입도를 역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일종의 교란 작전이 필요하다. 또한, 대테러 당국은 형성기(forming)에 나타나는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역이용해 조직의 결집을 지연시키고, 이탈 세력 발생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

한편, 대테러 기관은 조직의 구성원 현황을 파악해 이들 간 유대의 친밀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현 단계를 진단할 수도 있다. 만약 대상 조직이 개인적, 사회적 관계도가 미약한 사람들 간의 조직체로 분석되었다면, 그 조직은 구성원간 의사소통 문제와 상호 간 긴장이라는 격동기(storming) 특유의 조직 갈등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별, 종교, 국적 등 서로 다른 정체성의 개인들이 모인 집단일수록 격동기(storming)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 예를 들어 조직 내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폭력성을 표출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종교가 다른 사람 간에도 자살테러로 할 것인가, 총격 테러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법집행 기관에서는 해당 조직의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별 성향 등을 분석해, 조직 내 갈등과 내분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탈 세력을 이용한 조직 외해 전략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정보의 수집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는 Venkatesh(2008, 2009)의 연구를 참고해볼 수 있다. 직접 갠단조직에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

을 관찰 및 분석하는 과정은 치안당국의 잠입수사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잠입수사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Marx, 1974, 1992)에 대한 고려, 상충적 요인(Ross, 2002)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이처럼 형성기(forming)와 격동기(storming)에 있는 조직의 경우 당장의 극단적인 테러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 보다는 리더십의 부재, 조직 가치의 모호성, 구성원간 불신, 갈등 등으로 인해 조직의 조기 와해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다. 따라서, 대테러 기관 활동은 예방적 차원의 활동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시기이며, 전략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테러위험 인물 개인의 급진화 진행 과정에서 본 것처럼 테러조직도 규범기(norming)와 성과기(performing)에 진입하게 되면 테러 예방적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시기에 테러조직은 조직 형성기(forming)에 나타났던 은밀성이 해소되고, 공식화되며, 상하 위계질서가 구축되는 등 정교화된 방식의 구조적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형성기(forming)와 격동기(storming)에 나타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 방향성을 도출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조직의 쇠퇴와 소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테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기(norming)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조직은 조직 성장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관리적 문제가 리더십을 둘러싼 조직 구성원 간의 권한 배분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의 발전과정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리더와 구성원 간에 불화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리더가 가진 권한과 자원, 관리역량 등에 따라서 조직 지배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이론에서 제시된 리더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Fortune, 2003; Dmitrieva, gibson, Steinberg, Piquero, & Fagan, 2014; Evans & Sawdon, 2004)을 참고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대테러 기관은 이와 같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조직 통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메시지와 네러티브를 내부 협조자나 대테러 기관 고유의 기만적 전술을 통해 테러조직 내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이에 동요되는 불만 세력을 포섭, 지원함으로써

테러조직의 쇠퇴와 소멸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규범기(norming)에 테러조직을 향한 지속적인 갈등 유도 전략은 향후 조직적 차원의 테러공격 모의나 실행과 같은 테러징후 포착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핵심 조력자 포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테러조직의 쇠퇴와 소멸은 결국 조직 발전을 견인했던 내·외부적 동력과 인적 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Daft, 2015), 그와 반대로 테러조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만 확보되면 쇠퇴했거나 소멸한 조직도 언제 어디서든 재건될 수 있다는 역설 또한 상존한다.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던 이슬람 국가 IS나 알 카에다의 세력이 쇠퇴한 듯 보이지만 테러 위협은 여전하고, 최근 들어서는 오랜 기간 현지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테러전투원들이 각자의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또 다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GLOBSEC, 2020). 이들은 다년간의 전쟁 경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조직원 모집, 교육, 훈련과 같은 조직 지휘, 운영 역량을 그들의 국가 공동체 내에서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전세계 극단주의자들의 연대 또한 강화되면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의 테러조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테러 당국은 이러한 테러 양태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한국은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2015년 국제적 테러가 발생하고 위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도 IS의 테러위협 대상에 포함되었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위협사실이 공개되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전략과 대응책 마련은 국가의 안보와 치안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들의 급진화 과정에 대한 이론과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급진화의 전개과정을 조직행동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특히, 집단의 형성과 발전 단계를 설명한 Tuckman의 모델을 통해

8) YTN. 2015년 11월 26일자 기사, “IS, 한국 포함 60개국에 ‘테러 위협’ 경고 ...‘9월 이어 두 번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734705&sid1=001>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와 급진화 과정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함의가 있다.

이는 결국 조직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저해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활용하면 테러 단체의 형성과 급진화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 전략 방안 도출도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형성기(forming)에는 개개인들이 급진적인 생각이나 테러단체의 이데올로기 접근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차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테러 조직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일 경우, 형성기(forming)나 격동기(storming)에 나타나는 조직 구성원 간 갈등과 정체성 대립이라는 내부 긴장요인을 역이용하는 교란 기술로 조직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 이처럼 테러조직의 조직화 양상과 급진화 여부를 진단하고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 활동 수립의 새로운 대안적 지표로서 조직행동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할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국가기관의 활동은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취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테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보다 테러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대테러 활동은 ‘대테러 관련 개별법의 제정’, ‘테러의 유형 및 범주의 명확화’, ‘정보 주도형의 국가 대테러 활동 수행’, ‘유관 기관과의 상설 협업 체제 강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박재풍 외, 2016).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테러의 양상이 예측불허, 복잡, 다변화되면서 주요국에서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 분리의 원칙이 완화되며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성진 외, 2016).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테러단체, 테러위험 인물을 법률적으로 개념화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 테러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권(제12조), 외국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금금지 등 규제 요청권(제13조)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기본이 되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제9조)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으로만 규정해 놓은 점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현철, 2017; 백수웅, 2019).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예방 정보수집과 더

불어 테러 발생 직후 신속히 테러리스트를 검거하고 처벌해 잔존 테러범들의 범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집행 기관의 능동적인 수사 활동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의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는 유관기관 간 체계적 공조를 통한 협업 시스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테러와 같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무질서를 예방, 진압, 수사하는 실질적 역할 주체인 경찰 등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모두가 테러의 징후를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와해, 차단,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판단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가진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Tuckman의 설명처럼 한 조직의 발전과정이 반드시 형성기(forming), 격동기(storming), 규범기(norming), 성과기(performing)라는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 급진화 양상이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성은 대테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급진화를 테러리스트라는 단일 행위 주체에 국한시켜 2015년 ‘김 군’의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테러의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고 테러리스트와 관련한 실증적 사례가 부족한 국내 현실과 테러의 발생과 집단화 이전의 예방정책에 대한 선제적 연구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여 이론과 예방정책의 정교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의 급진화 과정을 조직행동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징후를 분류하여 테러예방정책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테러의 주체가 테러조직에서 극단주의에 심취한 개인의 자생테러범으로 변화하는 최근 경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등에서 기인한 자생테러나 현행법상 테러행위로 규정된 구체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국내 대테러 활동에 있어 Tuckman의 모델을 적용해 살펴본 본 연구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내 테러 연구에서 Tuckman 모델 적용이 보다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 외국의 자생테러와 유사한 형태 양상을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강력범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 단위 사회불만형 범죄자들의 행동 변화 역시 대테러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김 군’의 사례에 대한

검토는 최근 언택트(untact) 방식의 조직적 온라인 범죄를 테러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사례의 확장이 가능하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테러리스트 급진화 양상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테러 연구에 있어 조직행동론적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Tuckman의 이론 뿐만 아니라 조직행동론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론과의 비교, 융합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테러 예방활동의 정책형성과 효과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각 단계를 식별할 수 있는 지표의 형성과 조직 상황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 시기에 존재하는 조직구성원 및 리더의 행태를 지표화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진화를 테러리스트라는 단일 행위 주체에 국한시켜 분석하였지만 그동안 일반 형사 사건으로 해석되어 온 개개인의 사회 불만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등에서 비롯된 반사회적 범죄 행위 역시 급진화 관련 후속 연구에서 테러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연구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철. 2017.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7(1): 42-53.
- 김은영·윤민우. 2018. “무슬림 급진화에 대한 범죄학 이론의 적용가능성 검증 연구”, 《한국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 5-6.
- 김창윤. 2014.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비용 상환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연구”. 《경남대 산학협력단 범죄안전연구센터》, 84.
- 박재풍·강용길·박원규·박진희. 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경찰청》, 97-150.
- 박철현. 2010.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71-75.
- 배정완·박진희. 2013. “STEEP 분석을 통한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4호.
- 백기복. 2014. 《조직행동연구 제6판》, 창민사, 8-11.
- 백수용. 2019.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제83호, 104-124.
- 서정민·김강석·김병호. 2016. “한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의 수준과 위협 요인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연구센터》, 94-98.
- 연성진·승재현·조영오. 2016.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4-114.
- 윤봉한·이상진·임종인. 2015. “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IS 가담 ‘김 모’군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0권 제4호, 138-139.
- 이형우. 2005. “조직목표 달성요인으로서의 경쟁과 협력의 재조명”,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90.
- 정유선. 2011.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조직의 급진화와 온건화: 헤즈볼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집 1호, 251-253.

최성진. 2015. “범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테러범죄”, 《비교형사법 연구》 제 17권 제4호.

Alec P. Schmid. 2013. Radicalisation, De-Radicalisation, Counter-Radicalisation: A conceptual discussion and literature review, *ICCT Research Paper*.

Borum, R., Fein, R., & Vossekuil, B. 2012. A dimensional approach to analyzing lone offender terroris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doi:10.1016/j.avb. 2012.04.003.

Bruce W. Tuckman. 1965. Development Sequence in Small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1965. Vol. 63. No. 6, 384-399.

Daft, Richard L. 2015. Organizational Theory and Design, *Cengage Learning*.

Dmitrieva, J., Gibson, L., Steinberg, L., Piquero, A., & Fagan, J. 2014.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gang membership: Comparing gang members, gang leaders, and non - gang affiliated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2), 220-234.

Dix, G. E. 1974. Undercover Investigations and Police Rulemaking. *Tex. L. Rev.*, 53, 203.

Evans, D. G., & Sawdon, J. 2004. The development of a gang exit strategy: The youth ambassador's leadership and employment project. *Corrections Today*, 66, 78-81.

Fortune, S. H. 2003. Inmate and Prison Gang Leadership. Doctoral Dissertation.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GLOBSEC. 2020. European Jihad: Future of the Past? From Criminal to Terrorists and Back, Final Report.

Gordon H. McCormick. 2003. Terrorist Decision Making, Department of Defense Analy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ornia 93943.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950602>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 2012. Global Terrorism Index 2012.

-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 2017. Global Terrorism Index 2017.
- Karl Roberts. 2015. Social Psychology and the Investigation of Terrorism, *Charles Sturt University, United Kingdom*.
<https://psycnet.apa.org/record/2015-06876-011>
- LaFree, G., Yang, S. & Crenshaw, M. 2009. Trajectories of Terrorism: An Analysis of Major Groups that have Targeted the United States, 1970 to 2004,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 Marx, G. T. 1992. Under the covers undercover investigations: Some reflections on the state's use of sex and deception in law enforcement. *Criminal Justice Ethics*, 11(1), 13-24.
- Mitchell D. Silber and Arvin Bhatt. 2007. Radicalization in the West: The Homegrown Threat, *NYPD Intelligence*.
- NCTC, FBI, DHS, HVE. 2019. Homegrown Violent Extremist Mobilization Indicators 2019 edition.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014. Preventing Terrorism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Community-Policing Approach, 19-39.
- Quintan Wiktorowicz. 2004. Joining the Cause: Al-Muhajiroun and Radical Islam. Paper presented at The Roots of Islamic Radicalism Conference, *Yale University*.
- Quintan Wiktorowicz. 2005. Radical Islam Rising: Muslim Extremism in the Wes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Rainey, H. G. 2009.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 RAND. 2019.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in Australia and Abroad: A Framework for Characterising CVE Program 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Robbins, S. P., & Judge, T. A. 2013. Organizational behavior. *Pearson education*

limited.

- Ross, J. E. 2002. Trade offs in undercover investiga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9, No. 3 (Summer, 2002), pp.1501-1541.
- Sageman, Marc. 2004. Understanding Terrorist Networks,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 Sageman, Marc. 2008. A Strategy for Fighting International Islamist Terrorist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8(1), 223-231.
- Seth G. Jones, Martin C Libicki. 2008. How to Terrorist Groups End; Lesson for Countering al Qaida', *RAND Coporation*.
- Simon, H. A. 2013. Administrative behavior. Simon and Schuster.
- Simon, H., & March, J. 2006. Administr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2: Essential theories of process and structure*, 2(41).
- Ted R. Gur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a M. Pick, Anne Speckhard, Beatrice Jacuch. 2009. Home-Grown Terrorism -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Radicalisation Among Groups with an Immigrant Heritage in Europe, Amsterdam, Berlin, IOS Press.
- Tomas Precht. 2007. Home grown terrorism and Islamist radicalisation in Europe, Research report funded by the *Danish Ministry of Justice*.
- Tuckman, B. W. (1965). Developmental sequence in small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63(6), 384.
- Tuckman, B. W., & Jensen, M. A. C. (1977). Stages of small-group development revisited. *Group & Organization Studies*, 2(4), 419-427.
-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9. Lone Offender A Study of Lone Offender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1972-2015),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Venkatesh, S. A. 2008. Gang leader for a day: A rogue sociologist takes to the streets. Penguin.

Venkatesh, S. A. 2009. Gang Leader for a Day: A Response to the Critics. In Sociological Forum (pp.215-219). *Blackwell Publishing*.

Analysis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and Consideration of Policy Alternatives for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Lee Dong-hyuck**, Jeong Ji-su***

Terrorism by extremists who are deceived by or followed by terrorist organizations' agitation is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ly, we need to research on the antisocial attitudes and belief formation process of individual terrorists.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research on terrorist radicalization, which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f individuals, the process of terrorist formation of extreme beliefs.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using Tuckman's Team Development Model (TDM)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the analysis of the radicalization process of terror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terrorists was discussed.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can explain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individuals who are oriented towards terrorist organizations and accept their ideology.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organizing and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were similar to the mechanism of the TDM. I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delay and hinder organizational development are used to prevent the formation of terrorist groups and the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they can also be used to establish a terror prevention strategy and polic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nducted a new theoretical analysis on the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terrorist prevention policy.

* This study was funded by a grant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Korea (NRF-2019S1A5A8038640, NRF-2017S1A3A2065838)

** Inspector, Foreign Affairs Divisio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leevent@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jisu@police.ac.kr)

❖ key words: Terror, Radicalization, Team Development Theory, Re-radicalization,
Terror Prevention Policy, Policing Competitiveness

